

현 단계 북한경제에 대한 평가와 전망: 서로 다른 시각과 새로운 데이터

이 석 |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suklee@kdi.re.kr

I. 서론

북한경제를 바라보는 외부 연구자들 사이에는 흥미로운 특징이 있다. 누구나 북한경제에 대해 동일한 데이터와 정보를 마주하지만, 이를 통해 각자가 만들어 내는 이야기는 서로 너무도 다르다는 것이다. 현실의 북한경제를 동일한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면서도, 한편에서는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고 말한다는 뜻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2016년 대북제재 이후, 특히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많이 누그러졌다. 당시의 북한경제는 중첩되는 대내외의 악재로 누가 보든 분명하게 황폐화되어 갔기 때문이다. 그런데 2022년 중반 북한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한 이후 새롭게 시작된 2023년 북한경제의 상황이 다시 바뀌고 있다. 오래전의 과거처럼 북한경제가 다시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가 점점 더 엇갈리기 시작한 것이다.

본고는 2023년 북한의 거시경제 흐름을 개관하고, 이를 토대로 2024년 북한경제의 모습을 간단히 전망하기 위한 것이다. 매년 초반 ‘KDI 북한경제리뷰’에서는 이전 연도의 북한경제 동향을 정리하고 새해의 북한경제를 전망하는 특집호를 발간한다. 여기에는 산업, 무역, 시장 등 북한경제의 각 분야별 동향 논문들이 다수 게재된다. 본고의 목적은 이렇게 게재된 각 분야별 동향 논문들을 하나로 집약하여 북한경제 전반에 대한 일관된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이다.¹⁾ 당연히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 북한경제의 흐름 전반을 파악하는

1) 본고와 함께 KDI 북한경제리뷰 2024년 1월호에 게재될 2023년 북한경제 분야별 동향 분석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김규철, 「2023년 북한의 대외 무역 평가와 전망: 코로나 이후 지속된 회복세, 그러나 여전히 불확실성」; 이석기, 「2023년 북한 산업 평가와 2024년 전망」; 김영훈, 「2023/24년 북한 식량·농업 분야 동향과 전망」; 정승호, 「2023년 북한 시장물가, 환율의 추세 및 시장정책 동향」; 김경술, 「북한경제 분야별 평가 및 전망: 2023년 동향 및 2024년 전망」; 안병민, 「2023년 북한 교통 물류 부문 동향과 2024년 전망」; 조남훈, 「북·러 군사협력에 북한경제 회복에 미

일 자체가 만만치 않은 데다 무엇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각 분야별 동향 논문의 집필자들을 비롯하여 다른 북한경제 연구자들의 시각이 서로 엇갈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까지 본고와 같은 목적의 글을 작성할 때는 약간의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해 왔다. 북한경제 동향에 대한 각 연구자들의 서로 다른 시각들을 간단히 정리하여 소개하는 것과 동시에, 이들 각각의 시각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보다 큰 개념 또는 설명의 틀을 만드는 방식이 그것이었다.

2023년 북한의 거시경제를 평가하는 본고에서도 유사한 방식을 사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이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한 가지 특징을 보유한다. 그것은 2023년 북한경제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들을 보다 큰 설명의 틀을 만들어 포괄하려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근거하는 데이터 및 정보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데이터를 도입하고 분석함으로써 이들 각각의 시각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다. 북한경제를 조금만 진지하게 고민해 본 경험이 있다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겠지만, 북한경제에 대해 서로 엇갈리는 이야기가 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데이터의 한계 때문이다. 실제로 일반적인 경제학자가 다른 나라의 경제동향을 분석할 때 살펴보는 데이터의 범위가 100이라고 하면, 북한경제 연구자들이 북한의 동향을 분석할 때 찾아볼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는 아마 10도 안 될 것이다. 그 결과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제대로’ 읽는 것만으로도 동향 파악이 되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이들 데이터에 더해 각 연구자의 다양한 상상력이 함께 동원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서로 엇갈리는 이야기들의 배경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는 길은 데이터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과 동의어이다.

당연히 이는 쉽지 않다. 북한경제와 관련한 새로운 데이터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데이터를 다른 연구자들이라고 참고하지 말란 법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금 황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본고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사용한다. 한반도 상공 위에 떠 있는 인공위성에서 제공하는 북한의 공해물질 배출 영상 및 야간조도 영상들을 수치 데이터로 전환하고, 이들을 통해 북한경제의 흐름을 파악하려는 것이다.²⁾ 이들 데이터는 이제까지 북한경제 연구자들에게 전혀 사용되지 않았거나, 일부 사용되었더라도, 대부분의 연구자로 확대된 상태는 아니다. 더욱이 이들은 전통적인 경제 데이터와는 그 궤를 완전히 달리한다. 따라서 이들을 이용할 경우 그간 북한경제 연구자들이 만들어 낸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는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북한경제 연구자들

치는 영향).

2) 이러한 데이터들은 현재 KDI 북한경제연구실의 김규철·남진욱 박사팀에서 수집하고 정리하고 있다. 이들은 한반도 상공의 다양한 인공위성들이 제공하는 각종 북한관련 영상 정보들을 경제학적으로 이용 가능한 일별(Daily) 월별(Monthly), 분기별(Quarterly) 수치 데이터로 전환 중이며, 이러한 작업이 일정 정도 진행될 경우 그 결과를 북한경제 연구자들을 포함한 일반에 공개하는 방법 역시 고려하고 있다.

이 2023년 북한경제에 대해 만들어 낸 다른 여러 이야기들을 다시금 생각해 보는 계기로 삼는 것이다.

물론 이들 새로운 데이터를 이용하여 북한경제의 흐름을 파악하는 일이 과연 효율적이고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논쟁적인 사안일 것이다. 실제로 이는 매우 설익고 현실과 동떨어진 생경한 이야기들만을 양산해 내는 위험한 시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러한 위험을 굳이 감수하는 이유는, 외부세계의 북한경제 연구를 발전시키는 길은 결국 데이터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이며,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데이터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믿음 때문이다. 본고의 시도가 위험해 보일지라도 부디 너그럽게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2023년 북한의 거시경제 변수들에 대한 움직임을 관찰한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견해를 소개한다. 이러한 견해는 2023년 북한경제가 그간의 극심한 침체상태에서 부분적으로나마 회복되어, 호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본다. 3장에서는 동일한 북한의 거시경제 변수들에 대해 부정적인 해석을 시도하는 견해를 소개한다. 이에 따르면 2023년 북한경제는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지속되는 침체로 인한 경제적 후유증이 전면화되는 시기로 평가된다. 4장에서는 인공위성의 북한 공해물질 배출 및 야간조도 영상 정보를 토대로 2023년 북한경제를 또 다른 각도에서 분석한다. 이를 통해 2023년 북한경제는 여전히 침체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와 전환의 움직임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강조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고, 2024년 북한경제를 간단히 전망한다. 여기에서는 향후 북한경제와 관련된 대외적 요인의 중요성에 대해 주목하고, 무엇보다 북한이 지속되는 경제적 침체로 인해 ‘절망의 선택’에 빠질 위험성이 있는지에 주의를 기울인다.

II. 관찰과 해석 A - 회복과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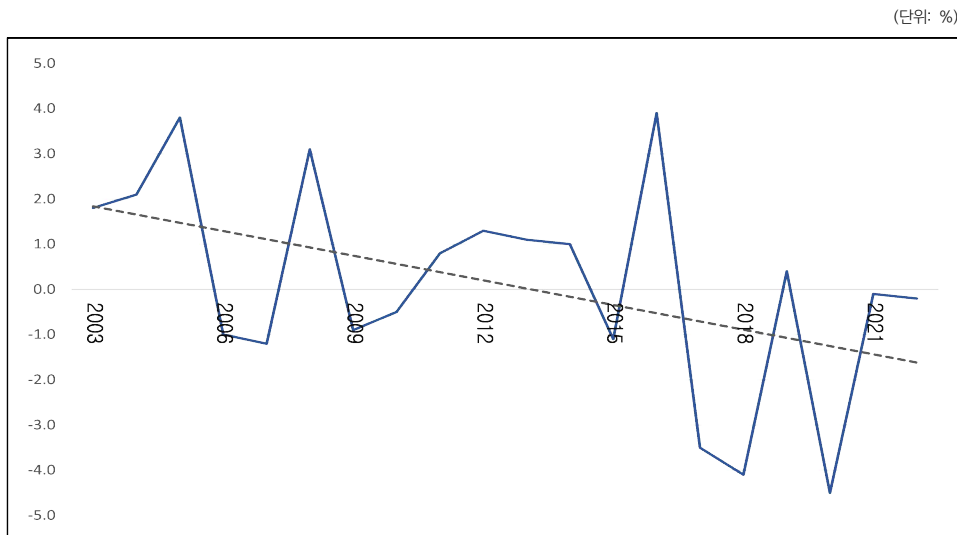
2023년 북한의 거시경제 변수들은 대부분 이전 연도에 비해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직관적으로 2023년 북한경제는 2022년에 비해 일정 정도 호전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실제로 대다수의 외부 연구자들은 2023년 북한경제가 그간의 코로나19 경제상황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회복된 모습을 보였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러한 회복세가 지속될 경우 그간의 경제적 피해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물론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 견해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이처럼 2023년 북한경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를 먼저 검토함으로써 전체적인 논의의 기초로 활용한다.

1. 무역과 시장

우선 2023년 북한경제가 어떤 환경에서 출범하였는지 생각해 보자. [그림 1]은 2000년대 이후 한국은행이 발표한 북한의 GNI 성장률 추정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북한경제는 2016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본격화된 이후 뚜렷한 경기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충격이 가해진 2020년 이후에는 연속적이고도 분명한 마이너스(-) 성장률로 인해 경제가 상당한 혼란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7년 이후 2022년 현재까지 약 6년여의 기간 동안 제재와 코로나19라는 두 가지의 부정적 충격으로 인해 지속적이고도 누적적인 경제적 피해가 진행되었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보면 2022년 북한경제는 1990년대 중후반의 경제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 2023년 북한경제는 바로 이러한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출범하였다.

[그림 1] 북한 GNI 성장률 추이



자료: KOSIS; (남북)한국은행(<https://ecos.bok.or.kr>, 검색일: 2024. 1. 25)

물론 2022년 북한경제에서는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2022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북한 당국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하고 대외무역을 확대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은 같은 시기 ‘위드(with) 코로나’ 정책으로의 전환 및 이를 기반으로 한 경제적 리-오프닝(re-opening) 경향을 보여주었던 중국의 움직임과도 맞물리면서 실제로 북한의 대외무역이 2022년 6~7월을 기점으로 뚜렷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그 결과 2023년 북한경제에서는 대외무역의 규모가 2020~22년의 코로나19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표 1> 북한의 연간 대중국 수출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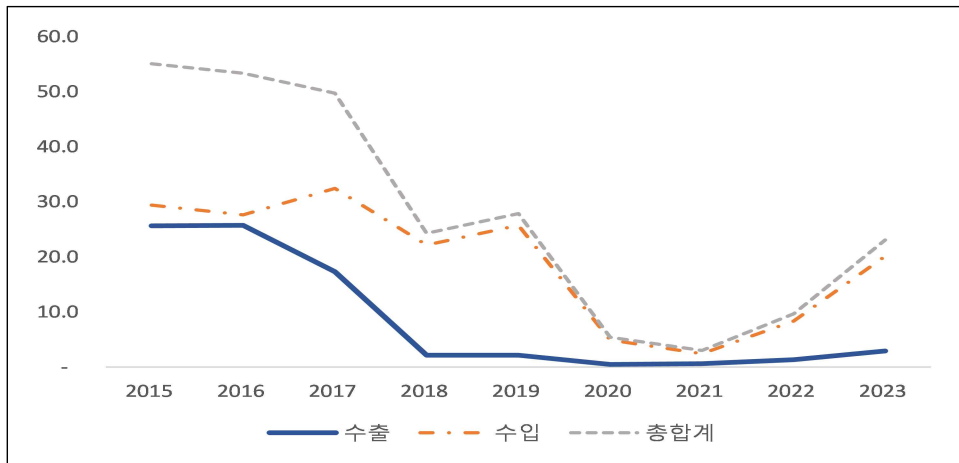
(단위: 억달러)

	수출	수입	총합계
2015	25.7	29.4	55.1
2016	25.7	27.6	53.4
2017	17.3	32.4	49.8
2018	2.1	22.2	24.3
2019	2.2	25.7	27.9
2020	0.5	4.9	5.4
2021	0.6	2.4	3.0
2022	1.3	8.3	9.7
2023	2.9	20.1	23.1

자료: 중국해관, 해관통계(<http://english.customs.gov.cn/>, 추출일: 2024. 1. 26).

[그림 2] 북한의 연간 대중국 수출입 추이

(단위: 억달러)



자료: 중국해관, 해관통계(<http://english.customs.gov.cn/>, 추출일: 2024. 1. 26).

이러한 사실은 <표 1>과 [그림 2]에 잘 나타나 있다. 2022년 9.7억달러에 불과했던 북한의 대중국 무역 총액이 2023년에는 23억달러로 무려 2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더욱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 추세이다. 실제로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 북한의 대중국 무역 총액은 27.8억달러에 달하였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그 규모는 2020년 5.4억달러, 2021년 3억달러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2020~21년의 경우 사실상 북한의 대외무역이 거의 전면적으로 실종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 추세는 2022년 9.7억달러로 처음 반등하기 시작하더니, 2023년에는 반등세가 더욱 두드러져 대중국 무역 규모가 총 23억달러에 달한 것이다. 이는 적어도 북한의 대외무역에 관한 2022년 하반기 이후 2023년까지 경제적 회복세가 매우 뚜렷했음을 의미한다. 당연히 이러한 무역의 반등세는 북한의 (대중국) 수입이 주도하였다. 북한의 (대중국) 수출의 경우 여전히 대북제재가 작동함에 따라 일정한 한계가 존재함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3년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2022년의 1.3억달러에서 2.9억달러로, 그리고 수입은 2022년의 8.3억달러에서 20.1억달러로 모두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증가의 절대 규모면에서는 수입이 12억달러로 수출의 2억달러에 비할 것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보면, 2020년 이후 코로나 상황으로 북한경제의 작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해외의 물자 유입도 거의 막혀 있었으나, 이것이 2022년 하반기 이후 2023년까지의 수입 증대로 일정 부분 해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

2023년 대외무역의 확대는 북한의 시장에서도 변화를 몰고 왔다.⁴⁾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코로나19 기간 동안 북한당국은 달러화 등 외화의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외화환율을 북한 원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통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과거 달러당 8,000원대 초반의 수준에서 형성되던 북한의 시장환율은 코로나 기간 동안 달러당 최대 5,000원 이하의 수준까지 하락하였고, 이로 인해 환율에 연동되어 결정되던 쌀과 옥수수 등 북한 원화표시 시장가격 역시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물론 이러한 정책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유지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기간 중에는 대외무역이 사실상 봉쇄되어 달러화 등 외화의 수요가 일시적으로 사라진 것은 물론, 시장활동 역시 다양한 방역 통제로 인해 심각한 제한을 받았고, 그 결과 이들 환율 및 가격 통제가 나름대로 기능할 수 있었다. 문제는 2022년 하반기 이후 2023년까지 북한의 대외무역이 다시 빠르게 증가한 상황이었다. 이 경우 대외무역의 확대는 다시금 달러화 등 외화에 대한 북한경제의 수요를 부각시켜 더 이상 북한 원화에 유리한 통제적인 환율 정책은 유지되기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기

3) 이에 대한 자세한 토론은 김규철, 「2023년 북한의 대외무역 평가와 전망: 코로나 이후 지속된 회복세, 그러나 여전히 불확실성」을 참고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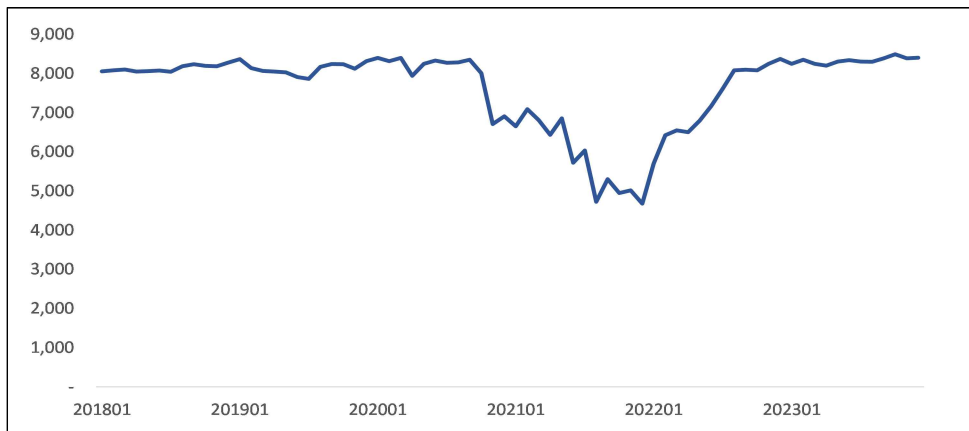
4) 2023년 북한의 환율과 시장가격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지만, 특히 본고와 함께 발표될 경승호, 「2023년 북한 시장물가, 환율의 추세 및 시장정책 동향」의 논의를 주목하라.

때문이다. 실제로 2022년 하반기 이후 대외무역이 확대되면서 북한의 원화 환율 및 이에 연동된 시장가격이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환율 및 시장가격의 상승세가 곧바로 안정세를 찾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달러화 환율의 경우 2022년 상반기 달러당 5,000~6,000원대 수준에서 이후 8,000원대까지 빠르게 상승하였으나, 8,000원대 초반에 이르러서는 줄곧 안정세를 보였다. 실제로 2023년 내내 북한의 환율은 달러당 8,300원 수준에서 거의 고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북한의 환율이 대외무역이 늘어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복귀한 것은 물론, 이러한 복귀가 이루어지자마자 과거와 같은 안정적인 환율 추세 역시 그대로 재현되었음을 뜻한다. 쌀과 옥수수 같은 시장의 식량 가격도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2023년 쌀의 경우 kg당 5,000원대 후반, 옥수수의 경우 kg당 3,000원 내외의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이후 줄곧 안정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보면, 2023년 북한경제에서는 코로나19 기간 중의 통제적인 환율 및 가격 정책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이 초래되었음에도, 가격 변수의 ‘오버슈팅(Over-shooting)’과 같은 거시경제적 불안정성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한의 시장이 코로나19 기간에 비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동했음을 시사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러한 환율 및 가격의 안정세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023년 북한경제에서는 한편으로는 대외무역이 증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연관된 시장이 더욱 기민하게 작동하여, 무역의 재개와 확대에 따른 거시경제적 불안정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림 3] 북한의 달러화 시장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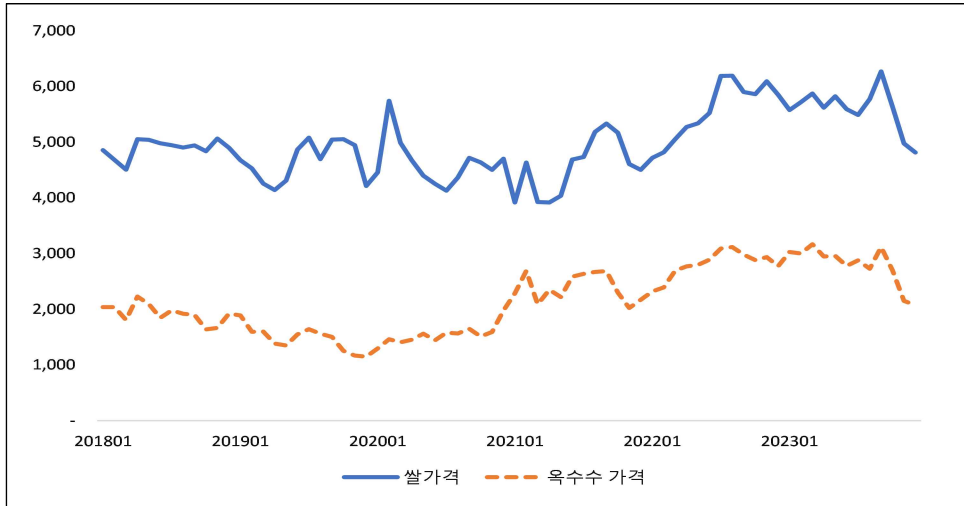
(단위: 북한 원)



자료: Daily NK.

[그림 4] 시장 쌀가격과 옥수수 가격 추이

(단위: 북한 원)



주: 옥수수가격은 데일리 NK의 유료 데이터로, 본고에서는 옥수수가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그래프로 제공.
자료: Daily NK.

이처럼 2023년 북한경제에서는 현재의 북한경제 전반을 지탱하고 있는 무역과 시장이라는 두 개의 축이 모두 예년에 비해 훨씬 더 양호하게 작동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23년 북한경제가 전년에 비해 호전되었다고 보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특히 북한의 무역과 시장이 멀게는 2016년 대북제재 이후, 그리고 가깝게는 2020년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다가,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의 기간을 계기로 반등하고 있음을 상기하면, 2023년 북한경제의 호조 또는 회복은 북한경제가 2016년 이후의 장기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2. 생산과 식량

이러한 호전 또는 회복 현상은 북한경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 및 식량사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간의 코로나19 기간 동안 북한의 식량사정이 매우 어려웠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특히 이러한 어려움은 2022년 이후 더욱 두드러졌던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2023년 초반까지 북한에서 아사자가 발생했다는 관찰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⁵⁾ 그런데 2023년 상반기 이후 북한의 식량사정은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5) 예를 들어,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2023년 5월 국회에 북한 지역의 아사자 발생을 관찰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연합뉴스」,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표 2>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2023년 북한의 식량 생산이 양호한 기후조건 등의 영향으로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2022년 450만MT에 머물렀던 북한의 곡물생산량이 2023년의 경우 482만MT로 7% 가량 상승한 것이다. 이러한 수치는 2017년 이후 북한의 연간 식량 생산량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다. 이에 더해 북한 당국 역시 해외에서의 긴급 곡물 수입 등 식량 공급 확대에 일정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양곡판매소와 같이 기존 식량배급제의 각종 제도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시장이 아닌 국가가 직접 식량을 장악하고 주민들에게 공급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몇 가지 사실들이 어우러지면서 2023년 하반기의 경우 아사자의 발생과 같은 식량사정의 추가적 악화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2년 후반 또는 2023년 초반까지 줄곧 악화되던 북한의 식량사정 역시 2023년 하반기 이후 점차 안정세를 찾아갔던 셈이다.

<표 2> 북한의 곡물 생산량 추이

(단위: 만톤)

	쌀	옥수수	맥류	두류	서류	잡곡	계
2004	180	167	0	0	0	0	347
2005	202	163	0	0	0	0	365
2006	190	175	21	16	45	2	449
2007	153	159	25	15	47	2	401
2008	186	154	22	16	51	2	431
2009	191	130	20	15	53	2	411
2010	-	-	-	-	-	-	-
2011	-	-	-	-	-	-	-
2012	204	173	19	14	56	2	468
2013	210	176	18	17	58	2	481
2014	216	172	17	17	56	2	480
2015	202	165	16	16	50	2	451
2016	222	170	17	15	55	2	482
2017	219	167	15	15	53	2	470
2018	221	150	15	14	54	2	456
2019	224	152	15	14	57	2	464
2020	202	151	16	15	54	2	440
2021	216	159	16	19	57	2	469
2022	207	157	18	18	49	2	450
2023	211	170	22	19	58	2	482

자료: KOSIS: 농촌진흥청.

[속보] 국정원 "北 1~7월 아사자 240여건...최근 5년평균의 2배 이상" (2023. 8. 17)을 참고하라.

물론 2023년 북한의 산업 생산이나 에너지와 교통 등 인프라 분야에 있어 뚜렷한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관찰은 나타나지 않는다.⁶⁾ 북한 당국이 비록 다양한 선전성 발표를 수행하였으나, 이러한 발표가 얼마나 현실에 부합하는지는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생산 및 인프라 분야에서 2023년의 경제상황이 2022년에 비해 더욱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코로나19가 북한 전역으로 확산된 2022년보다 2023년의 경제 및 생산활동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믿기 힘든 데다 무엇보다 중국과의 무역, 특히 수입이 늘어나면서 일정 부분 국내의 생산활동과 인프라 정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3. 해석

요컨대, 2023년 북한경제에서는 대외무역의 증대가 뚜렷하고, 시장활동 역시 상대적으로 더욱 활발해짐으로써 무역의 재개 및 확대에 따른 거시경제적 불안정성의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 그리고 그간 북한주민들의 일상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던 식량사정 역시 농업 생산의 증대 등을 배경으로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일반적인 생산활동에서 과연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모습만으로도 2023년 북한경제가 2022년에 비해 나아졌다고 말하기에는 충분하다. 상대적으로 코로나19 기간이었던 2020~22년 북한경제의 모습이 매우 어렵고 혼란스러웠기 때문이다.

III. 관찰과 해석 B - 침체의 지속과 후유증

이처럼 현재 관찰 가능한 거시경제 지표들을 살펴보면 2023년 북한경제는 전년도에 비해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언뜻 보면 당연해 보이는 이러한 결론에 대해 일부의 연구자들은 쉽게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들의 시각에 따르면 2023년 북한경제는 ‘회복’이라기보다는 ‘여전한 침체’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우 역설적으로 우리가 앞서 언급한 2023년의 양호한 북한의 거시경제 변수 수치들은 북한경제의 반등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라, 정반대로 2024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북한경제의 침체가 현실의 세계에서 어느 정도의 후유증을 낳고 있는지를 상징하는 의미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6) 이와 관련된 여러 견해들에 대해서는 이석기, 「2023년 북한 산업 평가와 2024년 전망」; 김경술, 「북한경제 분야별 평가 및 전망: 2023년 동향 및 2024년 전망」; 안병민, 「2023년 북한 교통 물류 부문 동향과 2024년 전망」을 참고하라.

1. 무역과 시장

이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앞서의 <표 1>과 [그림 2]의 북한 무역 데이터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자. 이미 언급한 것처럼, 2023년 북한의 무역은 2022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무역의 증가 추세는 이미 2022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2022년 상반기 이후 이미 북한 당국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하고 무역의 재개와 확대에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2023년 북한의 (대중국) 무역은 2019년 코로나19 이전 수치에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북한경제는 2016~17년 국제사회의 연이은 대북제재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였고, 이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무역 규모의 축소였다. 그리고 이러한 무역 규모의 축소가 거의 정점에 달했던 시기가 바로 2018~19년이였다. 실제로 2015년 62.5억달러에 달했던 북중무역 규모는 2017년 52.6억달러로 하락하기 시작하더니, 2018년과 2019년에는 24.3억달러와 27.9억달러로 1/2 수준 이하로까지 떨어졌다. 이는 코로나19가 없는 상황에서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의 무역이 이미 종래의 절반 이하인 30억달러 미만의 수준으로까지 하락한 상태였음을 말한다. 그리고 코로나가 발생하여 2020년부터 북한은 사실상 자체적인 경제봉쇄에 돌입하였다. 그 결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의 대중국 무역규모는 연간 각각 3.0억, 5.4억, 9.7억달러 등 10억달러 미만에 머물렀다. 따라서 단순 산술계산으로 하면,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의 (대중국) 무역은 연간 약 30억달러 이상 증발하였으며 (제재 이전 60억달러 이상에서 제재 이후 30억달러 미만으로), 코로나로 인해서는 연간 약 20억달러 (코로나 이전 30억달러 미만에서 코로나 이후 10억달러 미만으로) 이상이 증발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북제재는 여전하지만) 코로나가 종식되어 북한의 무역이 본격 재개되기 시작한다면 무역 규모는 얼마나 증대해야만 할까? 산술적으로 최소한 20억달러 이상의 증가가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래야만 코로나19가 없었던 2019년의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이보다 훨씬 더 큰 무역 규모의 증대가 나타나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이후 2022년까지 매년 최소 약 20억달러, 총 60억달러 정도의 무역의 손실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해외로부터 반드시 조달되어야 할 중요 물자의 부족 등 그간 억눌린 무역 수요가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코로나19 이후 증대해야 할 북한의 무역 규모는 앞서의 20억달러를 훨씬 더 능가할 것이라고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런데 앞서의 <표 1>과 [그림 2]에서 보듯이

2023년 북한의 무역 규모는 23.0억달러에 머물러 2019년의 수준에조차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2023년 북한의 무역이 늘어나기는 했으나 그 증가의 정도가 예상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수치가 나타났을까? 물론 이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그간의 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되어 2023년 북한경제가 코로나19 이후 무역을 빠르게 늘리고 싶어도 이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우이다. 예를 들어 2016년 이후의 경제적 피해 상황이 지속됨으로써 북한이 동원할 수 있는 외화의 규모가 급격히 축소되었고, 그 결과 대북제재로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작정 수입을 확대하여 무역 규모를 확실히 끌어올리는 방법 역시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코로나가 없어진 2023년의 경우에도 여전히 북한 당국이 무역의 확대에 조심스러울 경우이다. 실제로 2023년 북한당국은 중국과의 무역 재개를 공식화하면서도 양측의 자유로운 인적 왕래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이었고, 국경지역의 감시를 강화하여 밀수의 차단과 탈북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중무역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북한당국이 왜 이러한 태도를 보였을까 하는 점이다. 그런데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자명해 보인다. 2023년 이전까지 북한경제가 경험한 경제적 어려움이 너무 극심하여, 북한당국으로서 이제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면 주민들의 경제활동조차 쉽게 통제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추론이 현실적이라면 그것의 의미는 분명하다. 2023년 북한의 무역 규모가 왜 기대치처럼 빠르게 그리고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그 근저에는 그간 누적된 북한경제의 피해상과 이의 사회경제적 후유증이 자리잡고 있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2023년 북한의 무역 규모가 늘었다고 해서 북한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말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러한 의문은 북한의 시장가격 변수들의 움직임을 볼 때에도 유사하게 제기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23년 북한의 환율과 시장가격은 코로나19 이전 과거의 수준으로 돌아가거나 또는 조금 상승한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인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안정세가 유지된 것일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것이 정말 북한의 시장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원활하게 작동한 덕분일까? 이와 관련해 앞의 [그림 1]을 다시 보자. 이에 따르면 북한경제는 대북제재가 본격화된 2016년 이후 지속적인 내리막길을 걸었고, 이러한 내리막길의 경사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에 더욱 가팔라졌다. 이의 경제적 의미는 명확하다.

2016년 이후 북한주민들의 소득, 또는 경제적 여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북한 시장의 가격변수들이 과거의 수준으로 회귀했다고 해도 이의 경제적 함의는 과거와 결코 동일하지 않다. 예를 들어 2017년 북한주민의 소득이 10,000원일 때 쌀 가격이 8,000원이었던 것과 2023년 북한주민의 소득이 5,000원일 때 쌀가격이 8,000원인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은 코로나19 기간을 지나면서 상당한 현실성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거듭되는 경제적 침체로 이제까지 쌀과 같은 상위의 곡물을 소비하던 북한주민들조차 상대적으로 저렴한 옥수수나 같은 하위의 곡물에 대한 소비를 늘리면서 옥수수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욱 크게 상승하는 현상이 벌어졌던 것이 좋은 사례이다.⁷⁾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가격 변수들이 과거의 높은 가격 수준으로 되돌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사실은 결코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높은 가격에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줄고, 이로 인해 시장거래 자체가 줄어들고, 그 결과 북한경제에서 차지하는 시장의 기능과 역할이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만일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적이라면, 2023년 북한경제에서는 상대적으로 시장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기가 매우 힘들다. 2020~21년의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통제로 시장이 위축되었다면, 2023년에는 새로운 가격변수들의 움직임으로 시장이 더욱 위축되는 특이한 경제적 현상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2. 생산과 식량

이처럼 2023년 북한경제에서 시장과 무역이 진정으로 활성화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의문은 2023년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한 의문으로도 연결된다. 2023년 북한의 식량사정과 관련하여 가장 특이한 현상은 북한 당국이 시장에서의 사적인 식량 거래를 통제하고, 양곡판매소라는 기존의 배급제 제도를 활용하여 식량을 공급하는 것에 커다란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이다.⁸⁾ 실제로, 비록 많은 것이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2023년 북한경제에서는 시장에서의 사적인 식량 거래 자체가 불법화 되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런데 문제는 양곡판매소를 통한 식량의 공급이 전체 북한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관찰이다. 돈이 있다고 해서 누구든 양곡판매소에 가서 자유롭게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양곡판매소는 주로 북한 당국이

7) 이에 대해서는 이석, 2022년 1월호 「2021년 북한의 거시경제 분석과 2022년 전망」 및 「북한의 중장기 경제 추세와 2022~23년 북한경제 평가」를 참고하라.

8) 현재까지 북한의 양곡 판매소를 비롯한 최근 식량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이다. 여기에서의 논의는 KDI 북한경제연구실이 그간 이러한 주제로 수행한 다양한 세미나 및 토론회에서의 논의에 주로 기초한다. 대표적으로 2023년 4월 진행된 KDI 북한전문가 토론회 비공개자료: 권태진, 「최근 북한의 식량 사정과 전망」(KDI 발표 PPT)을 참고하였다.

지정하는 사회적 계층을 대상으로 식량을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의미이다. 물론 여기에는 국영기업의 노동자와 같이 북한 당국의 보호를 받는 계층이 포함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계층은 어떻게 식량을 구입할까? 시장 거래도 어려워지고, 양곡 판매소에서도 식량을 공급받지 못하는 계층의 경우이다. 물론 이들은 일종의 점두거래 형식으로 불법적으로 식량을 구매하거나, 스스로가 식량을 생산하거나, 혹은 또 다른 알려지지 않은 방법으로 식량을 조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경우가 되든 두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첫째, 이들의 식량 거래비용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2023년 북한의 식량 가격은 비록 안정적이지만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반면 일반주민들의 소득은 여전히 크게 위축된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량거래비용이 상승할 경우 이들 취약계층의 식량사정은 크게 위협받을 것이 분명하다. 앞의 <표 2>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2023년 북한의 식량 생산이 늘었다고 해도, 이들 계층이 직면하는 식량사정은 현실적으로 오히려 악화되었을 개연성이 크다는 의미이다. 둘째, 이들의 식량사정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해도 이들은 결코 시장에 가거나 양곡판매소에 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중 어디에서도 식량을 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보면 이들의 실제 식량사정을 관찰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적어도 일정 기간 및 수준 동안은 이들의 열악한 식량사정이 사회문제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1994년 이미 북한의 식량사정이 여의치 않아 굶주림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북한주민 대다수는 그냥 스스로 집에서 조용히 굶주리는 것을 선택했고, 그 결과 이들의 존재 자체가 1995년 하반기 이후에야 비로소 알려지기 시작한 과거 북한의 경험이 존재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2023년 북한경제에 있어서도 일부 계층의 경우 유사한 현상이 발생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는 뜻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 북한의 곡물 생산 수치가 증대했다고 해서 실제 북한의 식량사정 역시 좋아졌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일지도 모른다.

3. 해석

이처럼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2023년 북한경제에 대해 매우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 비록 2023년 북한의 대외무역이 증대하였지만, 이는 북한경제의 회복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023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북한경제의 피폐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증거일 수도 있다. 또한 북한의 제반 (시장)가격변수들이 비록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북한의 시장이 더욱 원활하게 작동한 것도 아닐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2023년 북한경제에서는 과거와 달리 북한 시장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위축되고 시장거래 자체가 퇴보하는 현실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3년 북한의 곡물생산 수치가 증가했다고 해서 북한의 식량사정이 나아졌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도 있다. 2023년 북한의 식량사정과 관련하여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시장과 양곡판매소 양쪽으로부터 배제되어 이제까지보다 더욱 굶주릴 수밖에 없는 ‘관찰되지 않는 북한의 취약 계층’의 식량사정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시각에 서면, 2023년 북한의 산업 생산이나 교통 및 에너지와 같은 인프라에서 왜 인상적인 움직임이 없었는지 역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 2023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피폐한 경제적 현실을 감안하면, 이들 생산 및 인프라 분야에서의 활동에 어떤 긍정적 변화를 몰고올 만한 체력이 북한경제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시각에서 중요한 것은 2023년 북한의 산업 생산이나 인프라 확충 등이 아니라 한 해 내내 북한 당국 스스로가 끊임없이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실패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북한 당국 스스로가 외면하지 못할 정도로 북한경제의 피폐함이 극에 달했다는 사실이 이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요컨대, 2023년 북한경제는 2016년 이후의 대북제재와 2020년 이후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북한경제의 장기적 어려움을 벗어나는 긍정적 계기의 시작이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이러한 장기적 어려움이 2023년을 넘어 2024년 현재의 북한경제를 어떻게 황폐화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북한경제에 어떤 후유증을 남기고 있는지를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2023년 북한경제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IV. 새로운 데이터와 또 다른 평가 - 침체 그러나 변화의 움직임

이제까지 우리는 2023년 북한의 거시경제 움직임과 이에 대한 외부 연구자들의 해석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2023년 북한경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하지만, 이의 해석에 있어서는 화해가 되지 않을 만큼 서로 차이가 나는 두 가지의 대립적 견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렇다면 이처럼 다른 두 가지의 견해 가운데 과연 어느 것이 현실에 보다 근접한 것일까?

1. 데이터와 방법

솔직히 고백하자면, 현재의 수준에서는 이에 대해 정확히 답변을 내리기가 불가능하다. 현재 진행 중인 북한의 경제 추세를 분석하는 데 활용되는 경제 정보와 데이터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이에 대한 확정적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여, 조금은 다른 작업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것은 이제까지 북한경제 연구, 심지어는 일반 경제학적 연구에서 잘 사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데이터를 이용하여 2023년 북한의 경제상황을 판단하고, 동시에 앞서 언급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해석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는 것이다.⁹⁾ 실제로 여기에서는 한반도 상공 위에 떠 있는 인공위성들이 촬영한 북한에 대한 각종 영상 정보를 수치화하고, 이들 수치를 토대로 북한의 경제 추세를 판단하려 한다. 대표적으로 한반도 상공 위의 환경 인공위성이 제공하는 북한지역의 공해물질(NO_2)의 배출 수준과 그 밖의 위성들이 제공하는 북한지역 야간조도(Night Light)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작업은 모험적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위험하기까지 하다. 이들 정보가 본질적으로 경제적 정보가 아닌 데다, 이를 북한경제에 적용하는 데에는 다른 경제에서보다 훨씬 더 다양한 제약요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들 정보가 이제까지의 북한경제 연구에 전면적으로 활용되지 않은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보자. 공해물질은 직관적으로는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경우 더욱 많이 배출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실제로 이것이 경제활동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를 판별하기가 매우 어렵다.¹⁰⁾ 또한 특정 지역의 공해물질이 과연 해당 지역의 경제활동으로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의 공해물질이 대기의 흐름에 따라 이동한 것인지 역시 판단하기 쉽지 않다. 야간조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없지만, 이는 야간에만 해당되므로 본질적으로 주간에 주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과는 관련이 없다. 특히 북한의 경우 전력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물자의 하나로서 북한당국이 철저히 통제하고 계획에 따라 배분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에 따라 특정 지역의 야간조도가 상승할 경우 이것이 해당 지역의 경제활동 증가를 의미하는 것인지, 반대로 주간의 경제활동이 침체하여 북한 당국이 야간의 전력 공급을 늘린 것인지 판단이 어렵다. 북한의 경우에는 야간조도가 경제활동과 어떤 연관을 맺을지를 선형적으로 가정하기조차 쉽지 않다는 뜻이다.

9) 북한의 공해물질(NO_2) 배출 정보를 토대로 북한경제를 분석하려는 시도는, 필자의 지식으로는, 아직 한번도 시도되지 않았다. 다만, 야간조도를 이용하여 북한 경제를 분석하려는 시도는 수차례 이루어졌고, 특히 일정 부분에서는 상당한 학문적 성취 역시 발견된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학문적 성취로서는 Kim et al., "The Economic Costs of Trade Sanctions: Evidence from North Korea,"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145, 2023, 103813를 들 수 있다.

10) 물론 한국과 같이 공해물질의 배출을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선진경제의 경우 이와 경제활동 사이에 단순한 정(+)의 관계가 있다고 가정하기는 쉽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통제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저개발 경제라는 점에서 본문에서는 북한의 공해물질 배출 정도는 이와 연관된 경제활동과 정(+)의 관계를 갖는다고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모든 논의를 전개한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인식한 상태에서 여기에서는 조금 우회적인 방식으로 이들 데이터를 통해 북한의 경제 추세를 판단하려 시도한다. 우선 야간조도는 주간에 주로 수행되는 북한의 경제활동과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모호하므로 보조적인 지표로만 활용하고, 북한의 경제 추세는 기본적으로 공해물질(NO₂)의 배출 데이터를 토대로 판단한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공해물질(NO₂)의 배출 데이터 활용에 내재된 다양한 제약들을 가능한 우회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가. 북한의 주요 경제활동을 산업, 교통, 에너지, 시장, 군수 부문 등 5부문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부문에서 중요 시설이 위치하거나 핵심적인 경제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지역들의 지리 좌표를 확정한다. 그리고 인공위성이 이들 지리 좌표에 해당되는 지역의 공해물질(NO₂) 배출 정도를 매일매일의 영상으로 촬영한 정보를 수치화한다.¹¹⁾

나. 위의 가.에서 확정한 각 부문의 주요 경제활동 지역이 위치한 주변의 공해물질(NO₂) 배출 정도에 대한 영상 정보 역시 수치화한다. 그리고 이를 위의 가.에서 획득된 해당 지역의 수치 데이터로 나누어 그 상대적인 비중을 구한다. 이러한 상대적인 비중을 통해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북한의 주요 경제활동 지역의 공해물질 배출 정도가 인근 주변 지역에 비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는지를 판단한다.

다. 위의 나.에서 획득한 공해물질의 상대적 비중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위치한 (또는 이를 대표하는) 경제활동이 이전에 비해 더욱 활성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반대의 경우 이러한 경제활동이 더욱 침체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각각의 경제 부문별 지역에서 나타난 이들 상대적 비중을 모두 총합하여 북한경제 전체의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활성화/침체된 것으로 판단한다.

11)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북한의 구체적인 지역 또는 산업체는 다음과 같다.

〈표〉 KDI의 북한 공해물질 (NO₂) 및 야간조도 정보 파악 대상 북한 지역

분류	지역1	지역2	
산업	김책제철소	황해제철소	외 12곳
에너지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외 8곳
군수	군수산업A	군수산업B	외 6곳
교통	나진항	신의주역	외 10곳
산업	통일시장	갈마시장	외 5곳

라. 공해물질 배출의 경우 시기(계절)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지며, 지역에 따라 그 배출의 절대적(변화) 수준 역시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위의 가.와 나.에서 수치화된 일간 데이터를 월별, 분기별 데이터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계절 조정치를 산출하고, 다시 이를 'Normalize'하는 단계 등을 거쳐 최종 사용한다.

그리고 야간조도 역시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일매일의 영상 정보를 수치화하여 사용한다. 물론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들 데이터의 해석에 있어서는 공해물질의 배출 정도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야간조도 데이터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입체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2.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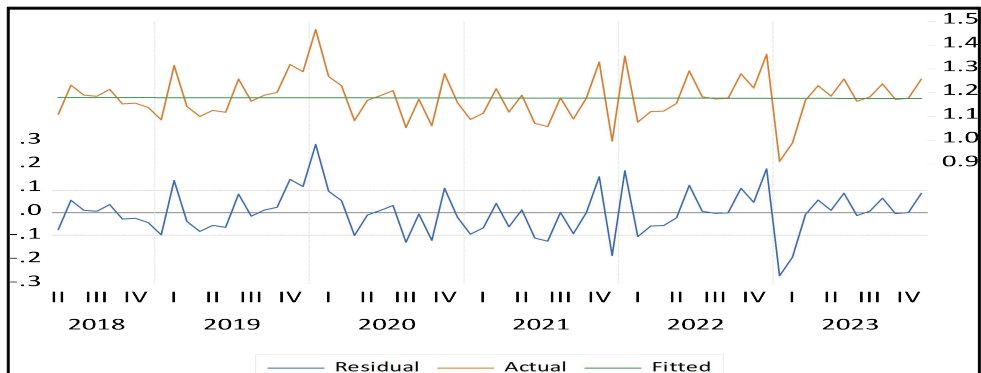
〈표 3〉과 [그림 5]는 이렇게 구축된 북한의 공해물질 데이터의 추세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우리는 앞서의 방식으로 구축된 일간 데이터를 월별 데이터로 전환하였고, 데이터가 존재하는 2018년 5월 이후 2023년 12월까지 이들 월별 데이터의 추세를 알아보기 위해 해당 시계열을 시간에 따라 회귀(regression) 분석하였다. 물론 이러한 추세가 선형(linear)인지, 비선형(non-linear) 인지를 선형적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변수의 승수를 계속 삽입하는 방식으로 해당 시계열의 추세를 가장 잘 설명하는 회귀 방정식을 도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2018년 이후 2023년까지 북한의 경제활동 관련 공해물질 배출 추세를 가장 잘 설명하는(fittest) 추세 방정식은 〈표 3〉과 [그림 5]에서와 같은 선형 회귀식으로 판단되었다.

그런데 이에 따르면 도출된 회귀식의 시간 계수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이는 2018~23년의 기간 동안 북한의 경제활동 관련 공해물질 배출 추세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일정한 강력한 방향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뜻이다. 다만,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시간 계수 추정치의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점이다. 이는 이 기간 동안 북한의 경제활동 관련 공해물질 배출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만일 이러한 공해물질 배출 추세가 북한경제의 활성화 정도와 밀접한 정(+)의 연관성을 갖고 있다면, 이 기간 동안 북한경제는 상대적으로 활성화되기보다는 더욱 침체했을 개연성이 높았을 것이다.

〈표 3〉 공해물질 배출 추세에 대한 회귀분석결과(2018. 5~2023. 12)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t-Statistic	Prob.
C	1.179947	0.02243	52.60595	0
@TREND	-0.0000615	0.000578	-0.10647	0.9155
R-squared	0.000172	Mean dependent var		1.177887
Adjusted R-squared	-0.01498	S.D. dependent var		0.09281
S.E. of regression	0.093503	Akaike info criterion		-1.87268
Sum squared resid	0.577024	Schwarz criterion		-1.8074
Log likelihood	65.67108	Hannan-Quinn criter.		-1.84681
F-statistic	0.011336	Durbin-Watson stat		1.954145
Prob(F-statistic)	0.915532			

[그림 5] 공해물질 배출 추세에 대한 회귀분석결과(2018. 5~2023. 12)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이러한 증장기적인 마이너스(-)의 추세가 2018~23년 중의 어떤 (부분) 기간에서도 단절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우리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위의 〈표 3〉의 회귀식을 대상으로 다중단절검증(Multiple Break Test) 및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하는 초우검증(Chow Test)을 모두 수행하였다. 그 결과 어떤 추세의 단절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의 추세 역시 이전과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만일 2018~23년의 전체 기간 동안 북한의 경제활동 관련 공해물질 배출 추세가 마이너스(-)의 경향을 보여 상대적으로 북한경제의 침체를 반영하였다고 가정하면, 이러한 침체 추세는 2023년에도 여전히 유지됨으로써 이 기간 중 추세의 반전이 일어났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표 4〉 공해물질 배출 추세에 대한 다중단절검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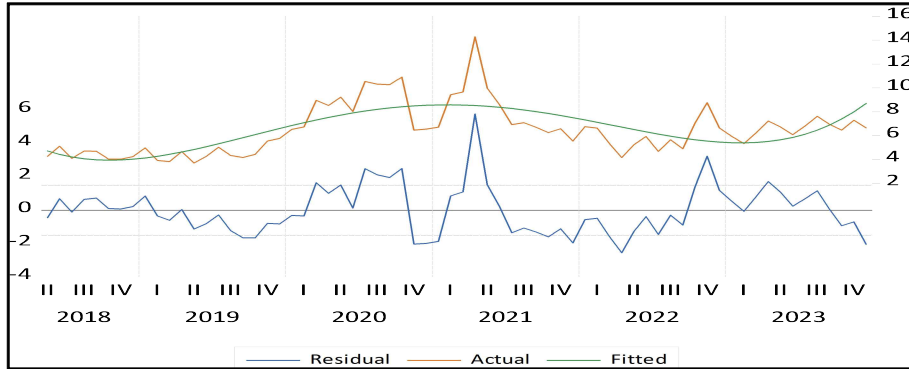
Sequential F-statistic determined breaks:			0
Break Test	F-statistic	Scaled F-statistic	Critical Value**
0 vs. 1	4.894767	9.789534	11.47
*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 Bai-Perron (Econometric Journal, 2003) critical values.			

그런데 야간조도 데이터로 살펴본 북한경제의 추세는 이와는 매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와 [그림 6]은 앞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2018년 5월 이후 2023년 12월까지 북한의 야간조도 추세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이 기간 중 북한의 야간조도 추세를 가장 잘 설명하는 추세방정식은 선형이 아니라 비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형태는 2018년 이후 2020년 초반까지는 상승, 이후 2021년까지는 하락, 2022년 이후 다시 상승하는 파도형 추세를 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렇게 추정된 추세 방정식의 계수 추정 값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와 [그림 6]에 제시된 회귀 방정식이 북한의 야간조도 추세를 통계적으로도 매우 잘 설명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이후의 상황에 집중하면, 이러한 추세의 의미는 매우 분명하다. 북한의 야간조도는 2022년을 전후하여 2020년부터 시작된 하락추세에서 반전하여 상승 추세를 그리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2023년의 추세는 매우 분명한 상승 추세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표 5〉 야간조도 추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2018. 5~2023. 12)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t-Statistic	Prob.
C	1036.55	240.1481	4.316295	0.0001
@TREND	-40.8255	9.106285	-4.48323	0
@TREND^2	0.593129	0.127802	4.640986	0
@TREND^3	-0.00375	0.000787	-4.76332	0
@TREND^4	8.72E-06	1.80E-06	4.853817	0
R-squared	0.516795	Mean dependent var		6.490344
Adjusted R-squared	0.486116	S.D. dependent var		2.096249
S.E. of regression	1.502711	Akaike info criterion		3.723105
Sum squared resid	142.2629	Schwarz criterion		3.886304
Log likelihood	-121.586	Hannan-Quinn criter.		3.787769
F-statistic	16.84489	Durbin-Watson stat		0.877177
Prob(F-statistic)	0			

[그림 6] 야간조도 추세에 대한 회귀분석결과(2018. 5~2023. 12)



3. 해석과 판단

이처럼 인공위성이 제공하는 북한의 공해물질 배출 정보와 야간조도 정보는 북한경제의 흐름에 대해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둘을 합치면 어떤 이야기가 될까? 조금은 거칠고 축약적이지만, 아마도 이 둘을 혼합하면 코로나19 발생 기점인 2020년 이후의 북한경제는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그려질 것이다.

A.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북한의 공해물질 배출 추세와 야간조도의 추세는 모두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이들 데이터로 보아도 이 기간 중 북한의 경제활동은 활발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침체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특히 이 기간 중 관찰된 북한의 성장률 추정치를 비롯한 대부분의 거시경제 데이터들은 북한경제가 하강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보면 대북제재가 시작된 2016년 이후 북한경제는 적어도 코로나19의 영향이 겹치는 2021년까지는 매우 심각한 정체를 겪었다고 보는 것이 옳바를 것이다.

B. 그런데 2022년을 전후하여 북한의 야간조도는 상승 추세로 반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상승세는 2023년 북한경제에서 더욱 뚜렷해진다. 다만, 여전히 북한의 공해물질 배출 추세는 이전과 다를 없이 정체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체 추세는 2023년에 이르러서도 전혀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2022년 북한의 거시경제 데이터들은 대체로 북한경제의 침체가 계속되거나

또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말한다. 북한의 성장률 추정치는 여전히 마이너스(-)이고, 식량문제 등 북한주민들의 생활상 역시 더욱 황폐화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2022년의 북한경제에 관한 한 이전의 침체 추세가 반전되지 못하고 있거나, 심지어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당시의 야간조도가 증가한 것은 북한경제가 활성화되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요인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주간의) 공식적인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그 결과 야간에 공급될 수 있는 잉여의 전력이 커졌을 수도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북한 당국의 연이은 야간 정치 군중 집회 등 경제활동과 무관한 야간 활동의 증대가 나타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뜻이다.

C. 그런데 문제는 2023년의 경우이다. 이 시기 동안 북한의 야간조도는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놓여 있었다. 반면, 공해물질 배출로 나타난 경제상황은 이전의 침체 추세가 아직도 지속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거시경제 변수들의 움직임에 대한 해석 역시 서로 엇갈리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2022년의 경우에서와 같이 무작정 야간조도의 상승이 일반적인 경제활동과는 무관할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오히려 이를 거시경제 변수들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과 연결시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시 말해, 2023년의 경우 어떤 형태로든 기존의 경제적 악화 추세를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존재하였고, 이것이 실제의 거시경제 변수 및 야간조도의 상승으로 나타났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여전히 공해물질의 배출 추세는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거시경제 변수 및 야간조도의 상승으로 나타났던 움직임은 여전히 생산을 위시한 북한경제의 기본적 활동을 근본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데까지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이처럼 인공위성이 제공하는 북한의 공해물질 배출과 야간조도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2023년 북한경제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 해석의 중간 지대 정도의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2023년 북한경제에서는 기존의 경제적 피해함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러 시도와 노력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존재하였으나, 이들은 아직 북한경제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2023년 북한경제 역시 이제까지의 경제적 피해함이

여전히 지속됨으로써, 오히려 이의 후유증이 더욱 심각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V. 결론 - 전망과 기대

본고에서 우리는 2023년 북한의 거시경제 움직임을 평가하고, 2024년 북한경제를 간단히 전망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2023년 북한의 제반 거시경제 변수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들도 살펴보았다. 특히 이제까지 북한경제 연구에서는 자주 사용되지 않았던 인공위성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2018년 이후 2023년 현재까지의 북한경제 추세를 검토하는 별도의 작업 역시 수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가 도달한 결론을 집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23년 북한의 거시경제 변수들은 대부분 예년에 비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무엇보다 북한의 대외(대중국) 무역이 크게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코로나19 기간 중 억눌렸던 북한의 원화 환율 및 시장가격 역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복구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환율과 시장가격은 상당한 안정세를 보였다. 이는 북한의 대외무역과 더불어 시장 역시 원활히 작동했음을 시사한다. 현재의 북한경제를 지탱하는 무역과 시장 두 가지 축이 모두 전년에 비해 호조를 띠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식량사정 역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북한 당국의 긴급 식량 수입 등으로 2023년 초반 이후 아사자 발생과 같은 관찰 결과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2023년의 북한경제에서는 그간의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속적으로 악화되던 경제상태를 조금이나마 되돌릴 수 있는 회복의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그러나 이처럼 긍정적인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 부정적인 견해 역시 존재한다. 이에 따르면 2023년 북한경제는 회복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침체 상태가 지속되었고, 오히려 이의 경제적 후유증이 만연하였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이후의 대외거래 재개로 무역이 증가하였다고 하나, 그 수준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을 밑돌고 있다. 2020~22년 코로나 시기 사실상 모든 무역이 실종되어 북한경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해외물자유입조차 차단되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 정도의 무역 증대는 오히려 특이한 것이다. 기존의 물자 유입 중단을 상쇄하려면 무역에서의 오버 슈팅은 아니더라도 이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무역이 늘어나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경제의 장기적 외화부족 등 또 다른 피해를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다. 시장 환율과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것 역시 시장의 활성화가 아니라 시장 거래의 위축과 시장 기능의 약화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간의 경제적 침체로 주민들의 소득과 자산의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이처럼 높은 가격 수준에서 시장거래가 활발히 일어났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식량사정 역시 북한 당국의 시장 통제가 강화되면서, 당국의 보호로부터 벗어난 사회적 계층의 처지는 더욱 어려워졌다고 판단된다. 다만, 2023년의 경우 시장의 식량 거래가 제한을 받음으로써 이들의 식량사정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 북한경제를 그간의 침체로부터의 회복이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셋째, 이제까지 북한경제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았던 인공위성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2023년 북한경제에 대해 또다른 뉘앙스의 이야기가 가능하다. 우선 북한경제의 생산활동과 같은 전반적 움직임과 연관이 있는 공해물질의 배출 정도는 2018년 이후 줄곧 하락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2023년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다만, 야간조도의 경우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줄곧 하락하였으나, 2022년을 전후하여 상승세로 반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 둘을 종합하면, 2018년 이후 북한경제는 줄곧 침체를 면치 못하였으나, 2022년을 전후하여 이러한 하락에서 벗어나려는 일부의 움직임 역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다만, 이러한 움직임은 2023년 현재까지 북한의 생산과 같은 경제 전반의 반등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따라 2023년 북한경제는 일부의 변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침체가 지속된다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론들을 종합해 볼 때, 2023년 북한경제는 비록 부분적인 호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그간의 침체 상태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북한경제가 2024년에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1. 전망 - 중국 요인 vs. 러시아 요인

물론 이에 대해서는 2023년 북한경제에 대한 해석에서처럼 서로 다른 의견이 다양하게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외부 관찰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공통적인 한 가지 사실이 존재할지도 모른다. 만일 2024년 북한경제가 그간의 추세와는 다른 어떤 모습을 보인다면, 그 요인은 아마도 내부에서보다는 외부에서 올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본고에서 충분히 논의한 것처럼 2016년의 대북제재와 2020년의 코로나19 사태 이후 북한경제의 침체와 체력 저하는 오늘 현재까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변화의 요인이 내부적인 것이 될 가능성은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다. 반면, 2024년 북한경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외부 요인들이 이미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그중 하나는 중국경제 요인이며, 다른 하나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요인이다.

먼저 중국의 경제상황을 생각해 보자. 누구나 동의하듯이 중국은 북한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2024년 벽두부터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의 사실이 부각되고 있다. 첫째는 2024년의 경우에도 중국경제의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으며, 특히 부동산을 비롯한 부채 문제가 금융으로 확산될 경우 중국경제는 상당한 곤란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둘째는 중국에서 활동 중인 북한의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및 전용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폭력적인 집단행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모두는 2024년 북한경제에 있어 중국 요소가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중국경제가 상당한 침체를 경험한다고 가정하자. 아니 여기서 더 나아가, 극단적으로 가정하여, 중국경제의 문제가 금융으로 확산되고, 그 결과 북한의 경제주체들이 주로 거래하는 중국의 (소규모) 지방 금융기관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북중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은 물론, 이는 무역을 뛰어넘어 북한경제 전체에 예상치 못한 파장을 몰고 올지도 모른다. 실제로 과거 북한은 마카오의 Banco Delta Asia라는 금융기관에 예치했던 2,500만달러의 예금이 미국에 의해 동결되자 극심한 반발과 혼란을 초래한 적이 있다. 그런데 현재의 북한경제는 당시와는 또 달라져 있다. 북한 당국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해외, 특히 중국의 금융기관과 거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북한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다. 이에 더해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노동자의 향배 역시 미지수이다. 이들이 과거와 같이 안정적으로 노동하여 여전히 북한 당국에 막대한 외화 수입을 올려주는 원천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각종 문제들이 불거져 북중 양국이 모두 시급히 풀어야 하는 현안으로 부각될지, 이들의 규모는 또한 양측에서 어떻게 조정할지, 그 결과 중국의 북한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북한으로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지 등등의 여부가 모두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중국경제와 북중 경제협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2024년 북한경제는 어느 때보다 더욱 커다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 현재 국제사회는 북한의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는 러시아로 수출되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협력에 대한 관심은 주로 북한이 기존에 보유한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다. 실제로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토대로 새롭게 무기 생산에 박차를 가한다는 증거는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앞에서 언급한 인공위성의 공해물질 배출 정보나 야간조도 정보를 활용해도 북한의 군수 업체들이 러시아와의 협력 이후 생산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증거는 좀처럼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러 군사협력은 2024년 북한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이 기존에 보유한 무기들을 러시아에 제공하는 대가로 에너지 및 원재료 등의 수입을 확대할 경우 북한경제의 운영에는 한층 여유가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여기에서 더 나아가, 만일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토대로 새로운 무기의 생산과 수출이라는 영역으로까지 진출하면, 상황은 본질적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군수산업은 전통적으로 매우 수익성 있는 수출 산업이며, 동시에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극단적으로 가정하여, 북한이 러시아를 매개로 국제적인 무기 수출 네트워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지 역시 모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국제사회 전체는 물론 러시아로서도 쉽게 허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그것이 현실로 펼쳐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능성 자체가 아주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그것이 2024년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이다. 북한은 GDP 몇 백억달러의 매우 소규모 경제라는 점에서 조그마한 추가적 외화 수입의 가능성이라도 무작정 도외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2024년 북한경제에서는 대외적인 요인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대내적인 요인만으로는 현재와 같은 북한의 경제적 침체가 극복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에 대외적인 요인이 가세할 경우 예상 외의 호전이나, 반대로 극심한 경제적 혼란의 가능성이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2024년 북한경제의 전망과 관련 대외적인 요인에 대한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2. 기대 - 절망의 결정에서 희망을 위한 결정으로

그런데 2024년 새해 벽두부터 북한 당국은 어려운 경제 현실을 돌보는 대신 국제사회와의 대결에 더욱 몰두하고 있다. 특히 한국을 상대로 공공연히 전쟁 협박을 하고, 군사적 도발을 암시하는 등 적대적 태도를 강화하고 있다. 가뜰이나 경제가 어려운 형편에 북한은 왜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일까?

이러한 태도는 언뜻 직관적으로는 납득이 힘들지만, 의외로 과거의 경제사와 분쟁의 역사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면 설명이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적 체제가 경제적

위험과 같은 체제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외부와의 군사적 대결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일본이 전체 세계와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선택했을 때, 이들은 정말 스스로가 전쟁에서 이길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을까? 상대방의 역사학자들은 이에 부정적이다. 이들 역시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할 확률이 더욱 높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하는 결정을 했을 때 내부에서 수많은 논란과 반대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쟁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단순하다. 전쟁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의 실패 확률이 거의 결정적이라, 그나마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매우 자그마한 확률이라도 운을 걸어 보고자 하는 유혹에 빠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어떤 학자들은 이를 ‘절망에 의한 결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사례는 먼 과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식으로 현재의 문제를 설명하는 데에도 원용된다. 예를 들어 현재 세계적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미중 패권 경쟁의 경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이 과연 언제 미국을 추월하는지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이들 간의 전쟁을 포함한 격렬한 대립은, 설사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국력이 미국을 추월하여 순위가 역전되는 시기를 전후하여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와는 전혀 다른 인식이 대두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중국이 미국의 국력을 추월하기도 어렵지만,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의 국력이 미국을 추월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이전에 중국의 국력이 정점을 지나 쇠퇴함으로써 미국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 중국은 영원히 미국을 추월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인해 그나마 미국과의 격차가 일정 한도 이내에 있을 때 오히려 격렬한 대립을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이 역시 앞서 언급한 절망의 결정과 유사한 추론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2024년 현재 북한이 점점 더 절망의 결정에 대한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 논의한 것처럼 북한경제의 침체와 피폐함이 확대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이 좀처럼 찾아지지 않는 상황을 점점 더 체제의 위기로 인식할 경우, 그나마 남아 있는 대외적인 대결 카드를 통해 모든 상황을 일거에 바꾸어 보려는 유혹인 것이다. 따라서 2024년 북한경제는 비단 경제적인 요인에서만 아니라 북한 당국의 정치군사적 선택에 의해서도 매우 급격한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절망의 결정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행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 중 하나는 바로 결정을 내린 당사자들이다. 당연하지만

한반도와 북한에서 이러한 불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북한에는 절망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 한국과 국제사회가 내민 손을 잡는다면 북한경제를 포함한 모든 현실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일거에 전환될 수도 있다. 2024년 북한경제를 전망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북한 스스로가 정말로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는 것뿐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이석, 「2021년 북한의 거시경제 분석과 2022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22년 1월호.
- 이석, 「북한의 중장기 경제 추세와 2022~23년 북한경제 평가」, 『KDI 북한경제리뷰』, 2023년 1월호.
- 이석기, 「2023년 북한 산업 평가와 2024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24년 1월호.
- 김경술, 「북한경제 분야별 평가 및 전망: 2023년 동향 및 2024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24년 1월호.
- 안병민, 「2023년 북한 교통 물류 부문 동향과 2024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24년 1월호.
- 조남훈, 「북·러 군사협력이 북한경제 회복에 미치는 영향」, 『KDI 북한경제리뷰』, 2024년 1월호.
- 김규철, 「2023년 북한의 대외무역 평가와 전망: 코로나 이후 지속된 회복세, 그러나 여전한 불확실성」, 『KDI 북한경제리뷰』, 2024년 1월호.
- 정승호, 「2023년 북한 시장물가, 환율의 추세 및 시장정책 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2024년 1월호.
- 김영훈, 「2023/24년 북한 식량·농업 분야 동향과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24년 1월호.

<기사자료>

- 『연합뉴스』, 「[속보] 국정원 "北 1~7월 아사자 240여건...최근 5년평균의 2배 이상"」, 2023. 8. 17.

<해외문헌>

- Kim et al., "The Economic Costs of Trade Sanctions: Evidence from North Korea,"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145, 2023, 103813.

〈웹사이트〉

한국은행(<https://ecos.bok.or.kr>, 검색일: 2024. 1. 25).

중국해관통계(<http://stats.customs.gov.cn/indexEn>, 검색일: 2024. 1. 25).

데일리NK 북한시장동향(<https://www.dailynk.com>, 검색일: 2024. 1. 25)

농촌진흥청(<https://www.rda.go.kr>, 검색일: 2024. 1. 31).

KOSIS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index/index.do>, 검색일: 2024. 1. 31).